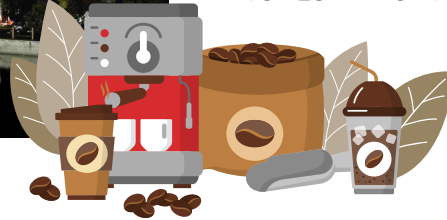




1 호수공원 힐링코스 2 고양 호수예술제 불꽃예술쇼 3 일산문화공원과 호수공원을 잇는 보행교



커피 즐기고 예술작품 감상하고 고양시 문화축제로 힐링

고양커피문화축제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산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열린다. 고양커피문화축제는 고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고양시는 차별화한 커피 축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커피도시 고양시’ 이미지를 만들고, 커피 관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축제는 커피 관련 산업체가 참여하는 산업존, 지역 카페와 함께하는 문화존, 시민이 즐기는 힐링존으로 꾸며진다. 산업존에서는 15개 업체를 선정해 커피머신과 장비, 홈 카페 용품, 커피 관련 용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문화존은 20개 업체를 선정해 지역 카페, 커피 관련 수제품, 커피 트럭 등을 선보인다. 시는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할 50여 개 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로 문의(☎ 031-8075-4291~2)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의 대표 가을 거리예술축제인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도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린다. 2008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일산호수공원 등지에서 진

행되며, 추석 연휴 주간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날짜와 시간대를 분산, 장기적인 힐링 축제로 추진된다.

거리예술 선진국인 유럽의 최신 작품들을 소개하는 해외 초청작, 국내 정상급 거리예술 단체가 펼치는 다양한 거리 창작공연 섹션인 공식 초청작, 미래의 거리예술 유망주들을 발굴하는 신진 아티스트들의 무대인 자유 참가작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로 해외 초청작은 제외하고, 고정 섹션인 공식 초청작과 자유 참가작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프로그램을 공모했다. 또 지역 거리예술단체들을 위해 고양시 예술단체로 한정된 ‘고양 동행작’과 ‘희망 참여작’도 동시에 공모했다.

시는 공모에 참여한 약 100개의 작품 가운데 공식 초청작 16개, 자유 참가작 17개, 고양 동행작 10개, 희망 참여작 1개 등 44개 작품을 선정했다.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은 안전한 진행을 위해 고양시의 축제 중 최초로 일정과 장소를 철저히 쪼개서 진행하는 분산형 축제를 진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과 정의로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